



# 영흥철강(주)

012160 | KOSPI | 철강선 제조업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5. 03. 27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603호

## Executive Summary

▶ 영흥철강은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자인 정준훈 후보자는 과거 한국철강 상무이사 출신임을 고려해 볼 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다소 어려운 조건을 판단된다. 영흥철강의 과거 최대주주가 한국철강이었으며, 전 최대주주인 KISCO홀딩스 역시 한국철강의 기업 분할을 통해 영흥철강의 최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준훈 후보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자인 신흥식 후보자는 현재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데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은 동국제강 등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국제강 최대주주이자 그룹 회장인 장세주와 영흥철강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세일은 사촌관계이다. 이러한 인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흥식 후보자가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서 영흥철강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신흥식 후보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 Agenda & Recommendations

| No         | 의안                       | 이사회       | 네비스탁      |
|------------|--------------------------|-----------|-----------|
| 제1호        | 제3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b>제3호</b> | <b>이사 선임 승인의 건</b>       |           |           |
| 3-1        | 사내이사 장상돈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3-2        | 사내이사 최문식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3-3        | 사내이사 박기운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3-4        | 사내이사 강근욱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b>3-5</b> | <b>사외이사 정준훈 재선임의 건</b>   | <b>찬성</b> | <b>반대</b> |
| <b>3-6</b> | <b>사외이사 신흥식 재선임의 건</b>   | <b>찬성</b> | <b>반대</b> |
| 3-7        | 사외이사 송경호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b>제4호</b> | <b>감사위원 선임 승인의 건</b>     |           |           |
| <b>4-1</b> | <b>감사위원 정준훈 재선임의 건</b>   | <b>찬성</b> | <b>반대</b> |
| <b>4-2</b> | <b>감사위원 신흥식 재선임의 건</b>   | <b>찬성</b> | <b>반대</b> |
| 4-3        | 감사위원 송경호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제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38기(2014.01.01~201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안) : 1주당 50원 (배당금 총액 약 22.7억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정관 제12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정관 제1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등을 참조하여 변경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 승인의 건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 사내<br>이사 | 장상돈 | 37.10.01 | 1  | 재선임    | - 동국제강㈜ 대표이사 사장<br>- KISCO홀딩스㈜ 회장    |
|          | 최문식 | 53.03.25 |    |        | - 영흥철강㈜ 상무이사<br>- 영흥철강㈜ 대표이사         |
|          | 박기훈 | 64.10.06 |    |        | - 영흥철강㈜ 생산총괄부장<br>- 영흥철강㈜ 공장장        |
|          | 강근욱 | 71.03.21 |    |        | - 영흥철강㈜ 기획재무관리팀 부장<br>- 영흥철강㈜ 재무이사   |
| 사외<br>이사 | 정준훈 | 43.07.23 | 1  | 재선임    | - 한국철강㈜ 상무이사<br>- 동보산업㈜ 대표이사         |
|          | 신흥식 | 67.12.30 |    |        | - (주)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대표이사<br>- 영흥철강㈜ 사외이사 |
|          | 송경호 | 47.05.27 |    |        | - KOTRA수출전문위원 (2006.6~현재)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 선임의 건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 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 정준훈 | 43.07.23 | 1  | 재선임    | 사외이사인<br>감사위원 | - 한국철강㈜ 상무이사<br>- 동보산업㈜ 대표이사         |
| 신흥식 | 67.12.30 |    |        |               | - (주)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대표이사<br>- 영흥철강㈜ 사외이사 |
| 송경호 | 47.05.27 |    |        |               | - KOTRA수출전문위원 (2006.6~현재)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구분            | 전기   | 당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 7(3) | 7(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20억원 | 20억원 |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325억원 가량 증가해 총 자산은 약 3,425억원 수준, 부채는 약 301억원 증가한 1,701억원 수준이며, 자본 총계는 약 24억원 증가한 1,725억원 기록
- 연결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49억원 감소하여 약 2,12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판관비 증가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약 69억원 감소하여 약 3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기타비용 감소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50억원 감소하여 25억원 기록
-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산은 약 350억원 증가해 2,96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부채는 약 331억원 증가한 1,42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자본 총계는 약 19억원 증가해 1,537억원 기록
- 개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은 약 151억원 증가해 1,42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0억원과 14억원 감소해 16억원의 영업이익과 25억원의 당기순이익 달성
-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배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주당 50원으로 상정
-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권고함

### Discussion

### Analysis

#### ▶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14년 영흥철강은 연결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다소 감소하여 2,12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판관비 증가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약 69억원 감소하여 3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약 50억원 감소하면서 25억원을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연결 재무상태표 시준으로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약 24억원 증가해 약 1,72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부채는 약 301억원 증가해 1,701억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약 325억원 증가하여 3,425억원 수준이었다.

개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는 매출은 약 151억원 증가하여 1,429억원을 달성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30억원과 14억원 감소하여 16억원의 영업이익과 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본 총계는 약 1,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331억원 증가하여 1,423억원을 기록하였다. 자산은 약 350억원 증가하여 총 자산은 2,960억원을 기록하였다.

영흥철강은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1주당 50원의 배당을 결정하였으며 자기주식 33,026,872주를 제외하고 배당금 총액은 약 22.7억원 수준이다.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자본시장법 제165조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정관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2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의 개정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기 위해 청약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
-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법으로 보장한 내용이므로 찬성 의견을 권고함
- 다만,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이 경영권의 승계 등 기존 최대주주의 강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사회의 중립적 판단과 주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함

## Discussion

### Proposal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정관 제12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정관 제1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등을 참조하여 변경

## Analysis

#### ▶ 정관 개정의 필요성과 위험성

영웅철강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주된 내용은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165조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주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관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2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된 내용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한 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기 위해 청약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법 개정 취지 등을 존중하여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다만, 해당 법 개정 과정과 영웅철강보다 먼저 이와 같이 정관을 개정한 기업들을 둘러싸고 시장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법과 정관의 개정이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악용될 위험성이 있음이 상당 부분 지적되었다는 점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기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세습할 목적으로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영웅철강 이사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주주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영흥철강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의 재선임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기존 이사회 전원에 대한 재선임 의안임
- 장상돈, 최문식, 박기훈, 강근욱 사내이사 후보자 3명은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큰 무리 없이 영흥철강을 경영해 왔으며 각자 그룹 회장, 대표이사, 생산 담당, 재무 담당 등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사회 제안을 존중하여 찬성 의견을 권고함
- 하지만 사외이사 후보자 정준훈은 과거 한국철강 상무이사 출신인데, 한국철강은 과거 영흥철강의 최대주주이며, 전 최대주주인 KISCO 홀딩스 역시 한국철강 분할을 통해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정준훈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확고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함
- 사외이사 후보자 신흥식은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출신인데,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은 철강무역 회사로서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음. 현재 영흥철강 최대주주인 장세일과 동국제강 그룹 회장 장세주는 사촌관계이므로 신흥식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되므로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

## Discussion

## Proposal

## ▶ 이사 선임의 건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 사내이사 | 장상돈 | 37.10.01 | 1  | 재선임    |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사장<br>- KISCO홀딩스(주) 회장  |
|      | 최문식 | 53.03.25 |    |        | - 영흥철강(주) 상무이사<br>- 영흥철강(주) 대표이사       |
|      | 박기훈 | 64.10.06 |    |        | - 영흥철강(주) 생산총괄부장<br>- 영흥철강(주) 공장장      |
|      | 강근욱 | 71.03.21 |    |        | - 영흥철강(주) 기획재무관리팀 부장<br>- 영흥철강(주) 재무이사 |
| 사외이사 | 정준훈 | 43.07.23 | 1  | 재선임    | - 한국철강(주) 상무이사<br>- 동보산업(주) 대표이사       |
|      | 신흥식 | 67.12.30 |    |        | - (주)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대표이사<br>- 영흥철강(주) 사외이사 |
|      | 송경호 | 47.05.27 |    |        | - KOTRA수출전문위원 (2006.6~현재)              |

## ▶ 사외이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영흥철강 이사회는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을 재선임 하고자 한다. 영흥철강은 이사의 임기가 1년이므로 사실상 기존 임원에 대한 재선임 의안이다.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정준운은 과거 한국철강의 상무이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철강은 영흥철강의 과거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영흥철강은 과거 1999년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나 2004년 한국철강과 M&A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며 한국철강의 자회사가 되었다. 이후 한국철강이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서 영흥철강의 최대주주가 한국철강에서 KISCO홀딩스로 변경되었고 다시 KISCO홀딩스와 세화통운이 장외매매 하면서 영흥철강의 최대주주는 장세일이 최대주주로 있던 세화통운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그리고 영흥철강이 최대주주였던 세화통운을 흡수합병 하면서 지금과 같이 장세일이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철강의 장상돈 회장은 장세일 영흥철강 최대주주의 부친이다.

이러한 인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철강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정준운 후보자가 과연 독립성을 갖추고, 영흥철강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준운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선임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인 신흥식 후보는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은 철강 무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동국제강 그룹의 회장인 장세주 회장은 영흥철강의 최대주주인 장세일과 사촌관계이며, 영흥철강의 장상돈 회장과 동국제강의 명예회장인 고 장상태 회장은 형제 사이이다. 영흥철강과 동국제강이 이처럼 인적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흥식 후보자가 영흥철강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흥식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선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그 외 기존 사내이사의 재선임과 송경호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장상돈, 최문식, 박기운, 강근욱 이사는 각각 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생산담당, 재무담당으로서 2014년 영흥철강의 실적이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지만 큰 무리 없이 회사를 경영해 왔다고 판단되어 이들의 재선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송경호 사외이사 역시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앞서 제3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에서 논의된 사외이사 3명에 대한 감사위원 선임 승인의 건임
- 제3호 의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준훈 후보자와 신흥식 후보자는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감사위원으로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되므로 반대 의견을 권고함

## Discussion

## Proposal

##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 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 정준훈 | 43.07.23 | 1  | 재선임    | 사외이사인<br>감사위원 | - 한국철강(주) 상무이사<br>- 동보산업(주) 대표이사       |
| 신흥식 | 67.12.30 |    |        |               | - (주)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대표이사<br>- 영흥철강(주) 사외이사 |
| 송경호 | 47.05.27 |    |        |               | - KOTRA수출전문위원 (2006.6~현재)              |

## Analysis

## ▶ 독립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감사위원

영흥철강은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감사위원인 정준훈, 신흥식, 송경호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고자 한다.

송경호 후보자는 앞서 제3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특별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고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으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재선임 되는 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준훈 후보자와 신흥식 후보자는 앞서 제3호 이사 선임의 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경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권고하나, 정준훈 후보자와 신흥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전년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 7명에 대해 20억원으로 이사 보수 한도를 유지하고자 함
- 2014년 3분기까지 이사 보수 지급액은 약 8억원이며, 2013년에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 이사 5명에 대해 20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약 10억원을 집행하였음 (사외이사는 무보수)
- 이사 수 및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 점, 그리고 과거 보수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사 보수 한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함

## Discussion

## Proposal

##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구분            | 전기   | 당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 7(3) | 7(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20억원 | 20억원 |

## Analysis

## ▶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영흥철강 이사회는 이사 보수에 대해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금년 보수 한도를 상정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 7명에 대해 20억원으로 보수 한도를 책정하였다.

2014년 3분기까지 영흥철강은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 7명에 대해 약 8억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 중 사외이사 3명은 무보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이사 5명에 대해 보수 한도 20억원 중 약 10억원을 집행하였다.

전년과 이사 수와 보수 한도가 동일하고 과거 보수 한도 대비 보수 지급액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책정된 보수 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http://www.navistock.com)